

전남도, 올 스마트공장 165개사 구축 '성과'

지난해보다 36개사 늘어

컨설팅·사후관리까지 지원

전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36개 많은 1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 스마트공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

한 기업은 생산성(30%) 및 매출(7.7%) 증가를 비롯 품질 개선(43.5%), 원가절감(15.9%), 산업재해 감소(17.9%) 등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변한 글로벌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총 사업비의 50%)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역시 도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비를 추가 지원(총 사업비의 30%)해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3개사에 불과하던 도내 스마트공

장 구축 기업은 지난해 129개사, 올해 165개사까지 늘어났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을 위해 기업현장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무상 컨설팅 사업도 도입했다.

지난해 76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이 중 25개 기업이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도 70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의 업종별 전문가 19명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후관리팀을 조직해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도내 제조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195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사전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후 관리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스마트공장은 열악한 지역의 제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조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1월 전통주

장흥 '숲향벼꽃 술도깨비'

전남도는 11월을 대표한 남도 전통술로 장흥군 소재 안양주조2공장의 '숲향벼꽃 술도깨비' (사진)를 선정했다. '숲향벼꽃술도깨비'는 찹쌀과 햅쌀, 표고버섯, 햇개울매, 여주, 국화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전통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진 신선하고 산뜻한 프리미엄 생맥 걸리다.



누룩과 생약초 등 식재료의 배합을 최적화해 풍미가 좋고 탄탄한 감이 없으며, 맛이 깔끔하고 상큼해 애주가들로부터 목 넘김이 부드럽고 숙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양주조2공장의 채창운 대표는 4대째 이어온 양조장을 물려받아 전통주에 대한 큰 열정을 갖고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주 관련 특허 4건과 지적재산권 6건을 확보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생산 자동화시스템 등을 통해 국가 지정 전통주에게만 주는 '금색마크'를 지난 2018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8년 국회선정 대한민국대표주, 2019년 남도품평회 최우수상, 2019년 우리쌀위드미페스티벌 전통주 품평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전통주 평가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등 시설 현대화와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코로나 역경 딛고...고용창출로 사회 기여

전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20개 선정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14개 사·군 20개 기업은 목포 (유)송원이엔지·(주)제이케이중공업, 여수 (주)승진엔지니어링, 순천 (주)두원산업·(주)삼미메탈, 나주 (주)우동·세라코(주), 광양 쿠로엔시스·(주)일성산업·중앙이앤씨(주), 곡성 (주)금성이앤씨, 구례 (주)립농산, 고흥 바이오코프(주)·(유)푸드원, 보성 보성포리테크(주), 장흥 (주)제이엔피, 강진 (주)로우카본, 해남 원광전력(주), 장성 (주)한사랑에프에스, 완도 누리영어조합법인 등이다.

특히 나주 (주)우동 기업은 섬유질 배합사료 등을 생산중인 기업으로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45명의 지역일자리 창출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간 1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나주시 사랑의 열매 착한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으며, 직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근로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2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12월중 개최예정인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도 수여된다. 인증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밖에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한도 확대를 비롯 청년 근속장려금 가산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는 도내 3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 일자리정책 심의위를 거쳐 2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서류 및 현장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일자리 평가분석센터에 의뢰해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T&G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지난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재영 KT&G 전남본부장으로부터 'KT&G 상사펀드 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받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KT&G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은 '상사펀드'로 민선7기 전남도청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도 제공>

“자치분권 역행하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 철회하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당정에 촉구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여당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협의회는 광역자치체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뒤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이원화 모델(20대 국회 발의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분권협의회 및 8개 시·군·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협의회측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은 기존 국가경찰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조직처럼 두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을 이처럼 국가경찰 체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일원화 모델은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둔채, 경찰업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로 나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일원화모델은 앞으로 과도해질 우려가 있는 경찰력에 대한 분산효과가 전혀없고, 인사추진에서도 국가직 경찰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경찰업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등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자치경찰제로 두고, 지휘·감독권만 분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광주·전남지역 지방분권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원화 방안은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 및 인력 이양이 전무해 기존 이원화 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정책을 기획·실천하며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에도 크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현재의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 200억원 융자지원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을 연리 1% 저리 융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8일까지며,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는 내년 1월중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2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벼 보급종 공급 확대

전남도 포대당 1만원 보조금

전남도가 벼 보급종 사용확대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으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 벼 보급종 구입 농가에 포대당 1만원씩 총 19만4000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한 농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협에서 보급종 공급 시 농가는 공급가격에서 1만원씩을 빼고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동진, 새일미 등 농가수요가 많은 벼 보급종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1등 매입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새청무가 보급돼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면 신동진, 새일미와 더불어 전남의 주력품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